

광주형 복지정책 추진 '컨트롤 타워' 뜬다

'광주복지재단' 9월 출범... 1단 6팀 2시설 체제

법인登記 완료... 대표이사·사무처장 등 공모

광주에 최적화된 복지정책을 개발·수립하고, 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광주복지재단'이 오는 9월 출범한다.

광주복지재단은 기존 빛고을노인복지재단에 광주복지재단의 기능을 더한 것으로, 이른바 광주형 복지정책을 끌고 갈 핵심 기관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14일 통합 출범을 앞둔 광주복지재단이 법인登記 완료에 이어, 대표

이사과 사무처장 등 임직원 공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역 지자체에서 복지재단을 운영중인 곳은 서울, 부산, 대전, 경기, 경북, 전남 등 6곳이며 광주가 7번째다.

재단 대표이사는 3년 계약직(연봉 8200만원)으로 공모를 거쳐 다음달 3~4일 접수 후, 13일 선임(후보자)될 예정이다.

선임된 후보자는 이후 시의회 인사청문회(9월 4일 예정)를 거쳐 이사장(광주시장)이 임명한다. 또 사무처장과 직원 등 인력 13명도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할 계획이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안에 등지를 둔 광주복지재단은 1단 6팀 2시설로 임직원 규모는 모두 117명에 달할 예정이며,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정관 변경 신청과 허가, 등기 등록 등을 완료한 상태다.

주요 기능은 복지정책개발 및 보급, 지역 복지사업 추진, 복지네트워크 구축, 장애인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 수립, 상담 등이다.

대표이사과 사무처장 아래 정책개발

팀, 복지사업팀, 행정지원팀, 지역사회서비스팀 그리고 장애인지원단장 밑에 기획팀, 자립생활전환지원 팀으로 구성됐다. 기존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복지타운 등 2개 시설은 복지재단이 맡아 운영한다.

광주시는 재단 설립 초기에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 4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인과 장애인 등 복지정책을 총괄할 재단이 출범하는 만큼 각종 규정 등을 손질한 뒤 대표이사 공모 등을 거쳐 9월 중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FISU 컨퍼런스 폐막
대학스포츠 발전을 모색하는 '2015 광주 FISU 컨퍼런스'가 13일 오후 호남대학교 상하관 1층 소강당에서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길리양 FISU 회장은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크게 기여한 서강석 호남대 총장과 남상남 한국체육학회 회장, 김윤석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호남대 제공>

숲 조성 희망 자치구·복지시설 대상 광주시, 2016녹색자금지원사업 공모

복지시설은 최대 2억원 자자체엔 5억까지 지원

광주시는 숲 조성을 희망하는 자치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2016년 녹색자금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산림청 녹색사업단의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총 171억원 규모이며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지역사회 나눔숲 조성사업 ▲다함께(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3개 분야이다. 사회복지시설(법인)과 특수교육시설, 자치구, 공익법인 등이 응모할 수 있다.

이중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교육시설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며, '지역사회 나눔숲 조성사업'은 생

활권 주변 녹지 취약지역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2016년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다함께(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사회적 약자 층도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는 나눔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공익법인이 응모할 수 있으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2016년 녹색자금 지원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녹색사업단 홈페이지(www.kgpa.or.kr)에서 녹색자금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사업제안서를 작성한 후, 오는 31일까지 시 공원녹지과 또는 푸른도시사업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학계,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월 11일까지 녹색사업단에 신청할 예정이다.

노원기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많은 기관이 참여해 지역 내 커뮤니티정원, 치유의 정원이 활발하게 조성되고 많은 시민들이 녹색복지의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GIST-아시아문화개발원 업무협약

문화·예술 콘텐츠·기술 공동 연구

GIST(광주과학기술원)와 문화·예술 및 콘텐츠 연구·제작 전문기관인 아시아문화개발원이 문화·예술 콘텐츠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분야에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GIST와 아시아문화개발원은 14일 오후 광주시 금남로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GIST 문승현 총장과 아시아문화개발원 최종만 원장 등 두 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GIST와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및 문화기술(CT) 분야 공동 연구·개발 ▲문화·예술 콘텐츠 공유·활용 및 정보 교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상설관의 콘텐츠 기획 및 문화기술 지원에 관한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GIST는 2013년 설립한 문화기술 전문 연구소인 한국문화기술연구소(KC-TI)를 통해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실질적인 협력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고광희 소장(GIST 기전공학부 교수)은 "한국문화기술연구소와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심도 있는 협업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 창조를 위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아시아 문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화 융성에 있어서도 발전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엘병원, 몽골 친선대사 역할 '톡톡'

U대회 조직적 응원에 선수단 50명 초청 만찬

모든 경기 참관...몽골 선수들 병원 방문 감사 전회

불임치료 전문병원인 시엘병원(병원장 최범재)이 광주 U대회기간 동안 몽골 선수 후원 위원단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응원전을 펼치는 등 몽골친선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시엘병원은 지난 2일 몽골 선수들의 U대회 선수촌 입촌식 참석을 시작으로 모든 경기를 참관하며 열띤 응원을 보여줬다.

또 '몽골 화이팅'이라는 슬로건으로 경기장 분위기를 이끌었으며, 경기가 모두 끝난 다음날에는 50명의 몽골 선수단

을 초청해 갈비구이 만찬을 대접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답례로 몽골 선수들은 지난 11일 경기가 진행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엘병원을 직접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표실했다.

시엘병원은 지난 4년 동안 200여쌍의 몽골 불임부부들에게 임신성공의 기쁨을 선사했고, 최범재 원장은 지난해 몽골 정부로부터 보건의료 분야 훈장을 받기도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전원주택 · 펜션 · 찻집 연수원 · 요양(병)원 · 식당 **적합**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 2-5번지
- 대지 9168평, 건물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건너편 전원주택단지, 담양리조트/금성 펜션단지 1분거리 금성산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처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 중 연 3억 순이익 창출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 정도 상승 가능
- 관광특구로 시설 자금 및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시세/감평가 - 30억 정도
- 매매 - 22억원(이전비 없음, 법인체 인수)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장/단기 투자 가치! 좋습니다

레스토/레스토랑/카페/커피전문점/호프/PC방 재즈바/노래홀/룸소주방/단란주점/7080/당구장 **최적**

금호동, 근린상가 매매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43-6번지 거북빌딩 7층 전체
- 만호초등학교 건너편/서광병원 맞은편/육교 바로 옆
- 대지권 55평, 건물 79평(실평), 대형 주차장 완비
- 현재 뷔스 Bar 운영중
- 시세/감평가 - 7억원 정도
- 매매 - 5억 5000만원

임대 - 보1억에 월 300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